

금융권 최초 피싱 피해 보상 상품 광주은행 '온가족 안심예금' 출시

금융사기 보상 보험 무료 가입...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 보장

광주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피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한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피싱 수단이 고도화됨에 따라 피싱·해킹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특히 고령자들에게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은행은 10월 "나를 비롯한 부모, 자식 등 가족이 입은 피싱·해킹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온가족 안심예금은 광주Wa뱅크 앱과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개인고액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가입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000만원 미만은 연 2.3%, 1000만~3000만원 미

만은 연 3.15%, 3000만원 이상은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이 이 같은 신규 상품을 출시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들어 피싱 피해 사례 및 규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 대비 514억원(35.4%)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액이 1264억원(65.4%)을 차지했고, 30대 이하 피해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전 연령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피싱 피해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무료 제공한다.

온가족 안심예금은 상품 가입과 동시에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해당 상품에 가입된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기(스미싱·파밍·메모리해킹 등)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또 예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피싱으로 입은 피해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는 만큼,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광주은행은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해드리고자 신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광주세관 10월 ' 으뜸 광주세관인'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동수)이 정영덕 주무관과 조미송 주무관을 10월 '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이들은 여행객이 은닉하여 반입하던 마약 4300여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을 정보분석과 정밀 검사로 적발한 바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매달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첫 1000억 달러 돌파

5년 연속 글로벌 5위 자리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 5년 연속 글로벌 5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아시아 기업 중 상위 5위 내에 들었고 현대차는 30위를 기록했다.

10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1008억달러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에 이어 글로벌 5위를 유지했다.

인터브랜드는 기업의 재무성과, 고객의 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 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인공지능(AI) 시장 선점과 AI 기술 적용 제품 확대, 연결 경험 강화, 반도체 경쟁력 기반 AI 시장 주도, 일관된 브랜드 전략,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 정책 등이 이번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은 순위는 현대차(30위)가 차지했다. 현대차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204억달러)보다 13% 증가한 23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다.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 5년 새 브랜드 가치는 141억달러에서 약 63% 성장했다. 한국 기업 중에 100위 내에 든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86위), LG(97위) 등 총 4곳이다. 상위권에서는 맥도날드(9위)가 10위권에 신규 진입한 반면 나이키는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4위로 밀렸다. AI 반도체 대교 기업인 엔비디아(36위)는 처음으로 100위권에 진입했다.

도요타(6위), 메르세데스-벤츠(8위), BMW(10위)가 상위권에 포진하는 등 자동차 업종이 100대 브랜드 중 1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1년 7개월만에 '5만전자' 내려앉아

삼성전자가 10일 3분기 실적 충격 여파가 지속되면서 1년 7개월 만에 '5만전자'로 내려앉았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32% 내린 5만 8900원에 거래를 마치고 지난해 3월 16일(5만 9900원) 이후 1년 7개월 만에 증가 기준 6만원 선을 내렸다.

주가는 장중 5만8900원까지 내리며 지난해 1월 6일(5만7900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리기도 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주요 기술주를 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1.06%)가 상승하고,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덩달아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4.89% 오른 18만67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한미반도체도 3.07%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줄 줄이 하향 조정했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8일 발표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9조원, 9조1000억원으로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인 80조8700억원, 10조3047억원을 하회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을 감안해도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이미 발표한 마이크론 등 경쟁사와 비교해 지나치게 부진한 실적"이라며 "전통적으로 재고조정과 완제품 관련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4분기에도 경쟁업체 대비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0만4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내렸다.

이밖에 NH투자증권(9만2000원→9만원), 유진투자증권(9만1000원→8만2000원), KB증권(9만5000원→8만원) 등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조정했다.

향후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에 대한 엔비디아 승인 여부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양에 국내 최대 규모 액화수소충전소 들어섰다

시간 당 200kg 수소 충전 가능

전남에 국내 최대 규모 액화수소충전소가 들어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준공식을 개최한 '광양 초남 액화수소충전소'는 시간 당 20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어 경기-인천 지역 액화충전소보다 충전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시간당 120kg을 충전할 수 있다.

광양 액화수소충전소의 경우 충전기 4대를 갖춰 하루에 수소버스 150대(대당 15.4kg 충전)를 채울 수 있는 규모로, 민간사업자인 효성하이드로젠(주)과 광양시가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공모 사업에 응모, 선정된 데 따라 국비 70억원 등 150억원을 들여 설치됐다.

광양 초남산단에 위치한 충전소는 광양고통과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충전시설 완성검사, 시험 운행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광양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수소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다. 기체수소 방식보다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일 열린 '광양 초남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한 박창환 전남도 청무부지사, 정인회 광양시장(사진 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버스에 수소를 충전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현재 광양 초남 액화수소충전소를 포함해 10개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37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에너지자립을 통한 에

너지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많은 기업이 전남의 그린수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중기부 창업기업 지원 '팁스' 운영사 전남 1곳뿐

123곳 중 86곳 수도권 집중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팁스(TIPS) 운영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전남에는 1곳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열(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1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팁스 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23개의 운영사 중 69.9%(86개사)가 수도권, 30.1%(37개사)만 비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만 73개(59.3%)의 운영사가 몰려있으며 경기 8곳, 인천 5곳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반면, 전남을 비롯해 세종·충북·울산·

제주는 각각 1곳에 불과했다. 팁스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 투자사인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에 먼저 투자하면 추천과 심사를 거쳐 정부가 R&D 자금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팁스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민간투자 1억원, R&D 정부출연금 5억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팁스 운영사가 보유한 창업 기업 추천권은 4019건인데 이 중 서울 팁스 운영사가 가진 추천권은 23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전남 지역 팁스 운영사의 추천권은 단 4건으로 전국 최하위다. 권향열 의원은 "각 지역의 산업 지형과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려한 팁스 운영사 및 창업기업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8월 나라살림 적자

84조 2000억원

지난해보다 18조 늘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8조원 넘게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국제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8월까지 누계 국제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0조4000억원 늘어난 143조8000억원이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2020년(96조원 적자), 2022년(8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레드 킹크랩 싸게 맛 보세요" 10일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수산코너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레드 킹크랩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9일부터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을 1kg 당 6만9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레드 킹크랩은 한정된 수량만 판매해 조기 품절 될 수 있다. 수산코너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 킹크랩을 찜으로 찌서 판매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외국인, 9월 한국 주식 7조원 넘게 팔았다

3년4개월 만에 최대 규모

채권은 6개월 연속 순유입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에서 약 7조원 넘는 돈을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55억 7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307.8원)을 기준으로 약 7조2844억원 규모다. 순유출은 지난달 한국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으로, 2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9월 순유출 규모는 지난 2021년 5월(-82억3000만달러)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채권에서는 단기 차익거래 유인 확대, 중장기채권 투자 수요 지속 등으로 외국인 자금이 30억4천만

달러 순유입됐다. 6개월 연속 순유입이다.

주식과 채권을 합한 전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25억3000만달러 순유출로 집계됐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27억80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이다. 한국 국제(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월평균 32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전월(35bp)보다 3bp 낮아졌다. 9월 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전일 대비)은 각 4.8원, 0.36%로, 전월(5.8원·0.43%)보다 변동성이 축소됐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99.16 (+4.80)
↓ 코스닥	775.48 (-2.76)
↑ 금리(국고채 3년)	2.962 (+0.022)
↑ 환율(USD)	1350.25 (+0.55)